

지각의 의미와 접촉 제한 사회

유은(채운)

목 차

I. 서론

II. 지각의 의미

1. 지각은 신체와 세계의 변증이다
2. 공간과 시간
3. 상호주체성을 통한 지각의 공존

III. 접촉 제한 사회

1. 지각의 변형
2. 공간과 시간의 변형
3. 공존의 변형

IV. 그럼에도 세계-에로-존재로서 자유 실현

1. 세계-에로-존재로서 자유의 의미
2. 접촉 제한 사회에서의 자유 실현

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각종 모임과 만남이 제한된 언택트 사회 속 한 개인으로 2020년의 수개월을 보내면서 어느새 친숙해진 단어, ‘뉴노멀’ 사회에 도달한 현재의 모습인 거리두기가 일상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다. 동시에 타자를 마주하지 못하는 사회가 계속 지속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찾아왔다.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던 노동 현장에서 느꼈던 무기력감을 잊을 수 없다. 6월 둘째 주에서야 처음 학급 학생들을 직접 만났다. 비록 일주일에 한 번뿐이지만 그 친구들과 같은 시공간에 놓여 함께 마주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다가오는 학생들에 대한 생동감과 책임감은 학생들을 마주하기 전에 느꼈던 그들에 대한 감정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 잠깐의 마주함으로 느껴지는 타자에 대한 연결감과 애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접촉 없는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 고민의 실마리로 ‘얼굴’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했으나, 비대면 사회라도 얼굴은 볼 수 있다는 점, 오히려 접촉과 이동이 사라지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을 알았다. 우리는 여전히 화상으로도 얼굴을 마주볼 수는 있지만 같은 시공간에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이동과 접촉이 제한된다는 것이 코로나19 이전과 그 이후의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나는 나의 몸으로 세계를 봄으로써, 세계에서 행함으로써 살아가는 존재이다. 봄과 행함의 불일치가 찾아온 사회의 모습을 떠올려보고자 한다. 이에 이번 논문에서는 첫째,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 근거한 지각의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신체와 세계, 시공간, 공존의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둘째, 접촉이 제한된 사회의 모습을 지각의 의미에 근거하여 서술해보고자 한다. 셋째, 메를로-퐁티가 제안한 자유의 정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 속에서 자유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겠다.

II. 지각의 의미

1. 지각은 신체와 세계의 변증이다

지각(知覺, perception, awareness, sensation)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알아서 깨달음. 또는 그런 능력
2. 감각 기관을 통하여 외부의 사물을 인식하는 작용. 또는 작용에 의하여 얻어지는 표상
3.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¹⁾

세 가지 의미 중 필자가 이 글을 풀어나가기 쉽게 하는 정의는 두 번째 것, ‘감각된 것에 대한 인지와 그 해석’이다 이는 메를로-퐁티가 현상학²⁾적 차원에서 제시한 지각의 본질을 이해

1) 고려대 한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84bfda4cfc7c4019a4dfbb18999e27fd>

2) 메를로-퐁티는 현상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현상학, 그것은 본질에 대한 연구이며 모든 문제는 현상학에 따르면, 본질을 규정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예컨대, 지각의 본질, 의식의 본질 등등. 그러나 현상학, 그것은 또한 본질은 존재의 자리에 다시 놓아두는 철학이자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는 그들의 ‘사실성’에서 출발함으로써만 획득될 수 있다고 믿는 철학이다(퐁티;13).”

하기 위한 단서들을 적절히 제공하기 때문이다.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지각이란 ‘신체의 행동에 의해 감각, 인지, 해석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자 ‘신체와 세계의 변증 과정’이다. 이러한 지각의 과정은 “매 순간 세계의 재창조나 재구성으로 주어진다.”³⁾ 한편, 세계의 재창조와 재구성에 관한 이해는 신체와 세계가 여기에 있다는, 즉 현전(現前)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이에 신체와 감각이란 무엇인지, 세계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체와 세계의 변증은 어떻게 가능하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지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보도록 하겠다.

신체는 운동 능력과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능력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신체가 운동함, 즉 움직임과 동시에 모든 감각은 깨어나고 자신이 마주한 세계를 지각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신체는 “체험한 의미들의 총체”로서 “일반적 기능처럼 행동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의미의 핵”⁴⁾이 된다. 그렇다면 세계를 지각하는 신체를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는 바로 알 수 있다. 내가 바로 신체이기 때문이다. 발가락을 꿈틀해봄으로써, 눈을 한 번 깜빡여봄으로써, 즉 신체는 운동함으로써 내가 신체 바로 그 자체라는 것을 증명한다.

세계는 “우리가 지각하는 바로 그것”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분석에 앞서 거기에 있다.”⁶⁾ 즉, 세계 역시 신체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관념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체험하고 지각할 수 있는 상태로 현존한다. 한편, 세계는 신체의 지각에 의해 드러나지만, 동시에 세계가 있기 때문에 신체는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지각의 행위는 세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에 지각을 통한 참다운 의식(코기토) 역시 세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현전하는 신체가 현전하는 세계 속에서 지각하는 것은 양자의 애매성, 불확실성, 불투명성, 으로부터 가능하다. 나의 신체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한다. 같은 행위를 의도하지만 어떤 행위도 같지 않다. 세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세계는 신체가 살아 있음으로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에 내가 지각하는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즉, 신체와 세계는 0과 1 그 사이에 있는 무한소수와도 같다. 지각은 불투명한 신체가 불투명한 세계로 나아감으로써, 세계가 신체에 주어짐으로써 이루어진다.

한편, 지각 현상에 대해 이해함에 있어, 카오스 이론에서 주장하는 생명체의 자기조직화 과정은 지각의 과정을 구조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생명 현상의 네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체의 자기 촉매는 닫힌 회로 내에서 이루어진다. 즉, 생명체는 자기 자신을 재생산하는 촉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창조한다. 둘째, 생명체는 열린 열역학계와의 신진대사를 통해 생명을 유지한다. 열린 비평형계인 생명체는 환경으로부터 물질과 에너지를 섭취하고 배설하는 신진대사를 통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셋째, 닫혀 있으면서 열려 있는 생명체의 역설은 ‘임계점’과 ‘상전이’를 통해 그 역설을 가능하게 한다. 물의 온도가 100°C가 되면 끓으면서 기화하듯이 생명체는 자기 내부에서, 그리고 자신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특정한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창발한다. 넷째, 생명체로 가득 찬 생태계는 공진화한다. 한 생명체의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진대사 활동이 외부 환경 및 다른 생명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모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 특징을 지각의 과정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⁷⁾

3) 메를로-퐁티, 류익근 역,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지성사, 2002, 317쪽.

4) 위의 책, 233쪽.

5) 위의 책, 26쪽.

6) 위의 책, 17쪽.

7) 심광현①, <비고츠키와 공감의 생태학: 근접발달, 카오스 이론, 거울뉴런발달생태학>, 2013, 7쪽.

생명의 네 가지 특징	지각의 과정	설명
달린 자기축매 회로	신체의 운동	신체는 움직이는 행위를 통해 존재한다.
열린 열역학계와의 신진대사	신체와 세계의 애매성에 근거한 변증	신체는 세계를 향해 운동하고, 세계는 신체의 받침대가 된다. ⁸⁾ 신체가 있기에 세계가 있고, 세계가 있기에 신체가 있으며, 이 둘은 모두 불투명하고 애매한 상태에 있다.
임계점과 상전이	신체가 대상을 지각, 대상이 나에게 존재	신체가 대상을 감각함과 동시에 지각하고, 지각한 대상은 나에게 존재하게 된다.
공진화	신체와 세계의 변화	신체가 세계를 지각하는 만큼, 신체와 세계는 변화한다.

<표 1> 생명의 네 가지 특징과 지각의 과정

2. 공간과 시간

현상학에서 공간과 시간에 대한 파악은, 앞서 세계에 대해 파악한 방법과 같이 신체의 운동성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세계는 시공간으로 구성되고, 그 시공간 속에 신체가 거주하기 때문이다.

1) 공간 형(形)과 지(地)의 관계. 형(形)은 지(地)를 바탕으로 드러난다.

공간은 “사물들의 위치가 가능해지는 수단”⁹⁾으로서 사물들 간의 관계로 구성되는데, 그 관계는 “지점(地點)-지평(地平)의 구조”¹⁰⁾ 또는 “형(形)과 지(地)의 구조”를 기초로 한다. 지점은 땅 위의 일정한 점으로서 위치 지어진 것이고, 지평은 지점이 드러날 수 있게 하는 위치 지어지지 않은 배경과도 같다. “지점-지평의 구조는 지점이 보여지게 될 실체성의 지대(地帶)를 자기 앞에, 그리고 보여지게 됨의 상대항인 미규정된 지평을 자기 둘레에 마련함으로써만 지점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가르쳐줄 수 있다.”¹¹⁾ 즉, 내가 공간 속에서 특정한 대상을 지각하는 것은 지(地)라는 바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특정한 사물, 예를 들어 책을 떠올린다고 하면 책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다. 책이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검은 색으로 가득 채워진 배경이 늘 함께 떠오른다.

한편, 무언가로 가득 찬 이 공간에서 어떤 것을 지점이자 형으로, 어떤 것을 지평이자 지로 할 것인가는 오로지 신체에 의해서이다. 따라서 공간은 신체의 운동에 의해 상황적으로 구성된다. 신체는 “세계를 지(地)로 하는 지각 장”¹²⁾을 지니고서 지각하고자 하는 대상을 지각한다. 예를 들어 내가 파도를 지각한다고 생각해보자. 파도는 수평선과 모래, 저 너머의 평평한 바다를 지(地)로 할 때 비로소 내 앞에 보이는 흰색과 푸른색의 흔적이 파도임을 지각할 수 있다. 한편, 파도를 지각하겠다고 하면서 그 흔적에만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는 흩어지는 색들만을 감각할 수 있을 뿐이고 ‘파도’라는 것을 지각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결국엔 아무것도 지각할 수 없게 된다.

8) 메를로-퐁티, 524쪽.

9) 위의 책, 371쪽.

10) 위의 책, 171쪽.

11) 위의 책, 171쪽.

12) 위의 책, 368쪽.

2) 시간 지각은 끊임없는 현재로 이루어진다. 현재는 신체에 의해 구성된다.

“신체는 반드시 ‘여기’에 있듯, ‘지금’ 존재”¹³⁾한다. 과거와 미래는 현재라는 지점에 대한 지평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나의 신체는 “현재의 주위에서 과거와 미래의 이중 지평을 기투하고 역사적 방향을 받아들이는 자연의 장소가 된다.”¹⁴⁾ 시간이 현재로서만 존재한다는 것은 나의 탄생과 죽음을 떠올려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여전히 나의 탄생과 죽음은 나에게 대하여 사고의 대상일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재로 가득 채우는 이 동일한 사고하는 자연[신체]는 조망을 통해서 나에게 세계를 열어주고, 나는 조망과 더불어 나의 우연성의 느낌, 추월당하는 불안을 겪고, 결과적으로 내가 나의 죽음을 사고하지 못한다 해도 나는 죽음 일반의 분위기에 살고 있고, 참으로 나의 사고의 지평에는 언제나 죽음의 본질같은 것이 있다.¹⁵⁾

탄생과 죽음, 즉 과거와 미래는 지평으로 존재하고, 현재는 그 지평을 지닌 하나의 지점으로 드러난다. 주체가 현재의 매 순간 지각하는 행위의 종합은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무언가가 된다. 이로써 과거와 미래는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현재와 연결됨으로써 존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간과 마찬가지로 시간 역시 전적으로 신체에 의해서만 구성되고 존재한다. “나의 신체는 시간을 소유하고 현재에 대하여 과거와 미래를 존재”¹⁶⁾시키는 주체이다. 나의 신체가 시간은 소유하는 것은 내가 지각하는 것을 종합함으로써이다. 내가 현재 지각함으로써 과거의 경험들이 다시 해석되고, 미래에 대한 지레짐작 역시 변화하는 불확실성으로 남아, 비로소 과거와 미래가 현재에 머물 수 있게 된다.

3. 상호주체성을 통한 지각의 공존

이 주제에 대한 서술에 앞서,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다. ‘즉자, 대자, 대타, 자아, 타아’라는 개념들이다. 각 개념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¹⁷⁾

개념	의미
즉자	[卽自, in itself] 헤겔 변증법에서, 그 자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정반합의 제일 단계로, 정(正)에 대응한다. 무지각적 상태
대자	[對自, for themselves] 헤겔의 변증법에서 즉자의 직접 상태에서 발전한 제2의 단계. 의식적 존재자가 자기 안에 대상적 존재를 간직하여, 그것에 관계하고 있음.
대타	[對他, for other] 타자에 대하여 존재하는 것.
자아	[自我, self, ego]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
타아	[他我, other self] 다른 사람의 자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존재하는 의식의 통일체

<표 2> 즉자, 대자, 대타, 자아, 타아의 의미

13) 위의 책, 224쪽.
 14) 위의 책, 365쪽.
 15) 위의 책, 546쪽.
 16) 위의 책, 365쪽.
 17) <표2> 각 의미들의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타자는 나와 마찬가지로, 타자 자신만의 고유한 신체를 지닌 즉자로 현전함과 동시에 타아를 지닌 대자로서도 현전한다. 나는 그러한 타자의 행동을 지각함으로써 즉자 존재이자 대자 존재인 타자를 받아들인다.

두 가지의 존재 방식이 있는데, 오로지 그 두 가지의 존재 방식만 있다. 하나는 즉자 존재인즉, 공간에 펼쳐진 대상들의 존재요, 다른 하나는 대자 존재인즉, 의식의 존재이다. 이제 타인¹⁸⁾은 내 앞에 즉자적으로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자적으로 존재할 것이고, 지각되기 위해서 나에게 모순적 작용을 요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타인을 나 자신과 구별해야 하고, 따라서 그를 대상의 세계에 위치시켜야 하며, 동시에 그를 의식으로, 즉 바깥과 부분이 없는 존재로 사고해야 하기 때문이려니와, 이 존재는, 이 존재가 곧 나이고 사고하는 것과 사고되는 것이 그 존재 속에서 혼동되기에 내가 접근할 수 있을 뿐인, 그런 종류의 존재이기 때문이다.¹⁹⁾

퐁티에 의하면 공존은 ‘의식’이 관념 속에 있는 지적 의식이 아니라 ‘지각적 의식’으로 정의되고 실현될 때 가능하다. 즉, “나의 의식이 나의 신체와 세계에 내속”²⁰⁾하여 세계-에로-존재함을 내가 체험할 때, 비로소 타자 또한 지각의 주체로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공존 방식에 대한 근거는 신경생리학적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바로 ‘거울뉴런’의 존재이다. 거울뉴런은 “자신이 행동할 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관찰을 통해 신경생물학적 공명현상을 나타낼 때 이를 활성화시키는 신경세포”²¹⁾이다. 나는 거울뉴런의 작용을 통해 타자의 행동을 지각한 즉시 자신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공동주의 집중²²⁾), 다른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도 추론할 수 있다(감정이입²³⁾). “세계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주체로서의 의식이라는 것은 자아와 타자 사이의 어떤 감정이입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주체는 타자와의 상호주관적 연결을 향해 열려 있다.”²⁴⁾

하지만, 공존은 결국 “각자의 편에서 체험되어야 한다.”²⁵⁾ 나는 나이고, 타자는 타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느끼는 슬픔을 당신이 느끼는 슬픔 그대로 느낄 수 없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심장이다. 심장은 언제나 제 주인만을 위해 뛰고, 계속 뛰기 위해서만 뛴다. 타인의 몸속에서 뛴 수 없고 타인의 슬픔 때문에 멈추지도 않는다.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라면 인간은 자신이 자신에게 한계다. 그러나 이 한계를 인정하되 긍정하지는 못하겠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슬퍼할 줄 아는 생명이기도 하니까. 한계를 슬퍼하면서, 그 슬픔의 힘으로, 타인의 슬픔을 향해 가려고 노력하니까. 그럴 때 인

18) 메를로-퐁티가 주어에 위치시킨 ‘타인(他人)’을 필자는 ‘타자(他者)’로 변경하여 서술했다. 타인은 인간동물에 한정된 용어라면, 타자는 인간동물과 비인간동물에 이르는 움직이는 생명체 모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동물과 비인간동물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인간동물로 살아가는 한 비인간동물의 타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인간동물과 비인간동물 모두 행위하는 주체이자 지각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동일한 위치에 놓고 서술하고자 했다.

19) 메를로-퐁티, 523쪽.

20) 위의 책, 525쪽.

21) 심광현①, 11쪽.

22) 위의 글, 12쪽.

23) 위의 글, 12쪽.

24) 위의 글, 13쪽.

25) 메를로-퐁티, 534쪽.

간은 심장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슬픔을 공부하는 심장이다. 아마도 나는 네가 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시도해도 실패할 그 일을 계속 시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나.²⁶⁾

나는 타자의 심장일 수 없기에, 타자가 느끼는 슬픔을 타자와 똑같이 느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타자가 느끼는 슬픔을 최대한 가까이 지각하기 위해 타자의 슬픔에 대해 공부하고, 타자와의 연결을 추구한다. 타자와의 이러한 연결 고리는 바로 서로에게로 향하는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은 하는 것은 행위와 더불어 언어이다. 언어는 몸의 운동에 대한 정교화된 해설로써 내가 타자에게 타자가 나에게 서로 스며들 수 있는 비계(飛階, scaffolding)를 제공한다. 따라서 언어적 의사소통은 정교화된 몸의 의사소통과도 같다.

타인의 지각에서 본질적 역할을 수행할 특별한 문화적 대상이 있다. 그것은 언어이다. 대화의 경험에서 언어는 타인과 나 사이에 공통 기반을 구성하고, 나의 사고와 그의 사고는 하나의 직물만을 만들며, 나의 말과 대화자의 말은 논의 상태에 의해 불려나오고, 이것들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것의 창조자가 아닌 공통 작용으로 끌려간다. …… 우리는 완전한 상호성의 협력자이고, 우리의 조망들은 서로에게 스며들며, 우리는 동일한 세계를 통하여 공존한다.²⁷⁾

타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우리는 같은 세계 속에 거주하게 되고, 상호 주체성을 지닌 서로 주체가 된다. 서로에게 스며들며 세계어로 공존하는 사회적 세계는, 나와 타자 간의 상호 주체적 삶을 통해 창발하는 공진화의 장이 된다.

Ⅲ. 접촉 제한 사회

메를로-퐁티가 지각한 세계는 1차 대전이라는 전쟁의 상황이었다. 전·후방이 따로 없고, 정면이고 측면이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죽음의 분위기에 노출되어 있었다. 내가 마주하는 상황은 전염병, 기후 악화, 멸종 위기, 난민 문제, 인간 소외 등 당시 전쟁과는 또다른 차원의 카오스 속에 살고 있다. 이에 대해 심광현은 자본 순환 공식 $[M \rightarrow C(LP+MP) \rightarrow M'(M+\Delta m)]$ 에 근거한 세 가지 지구적 위기의 상호연관성을 규명했다.²⁸⁾

26) 신형철,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한겨레출판, 2018. 28쪽.

27) 메를로-퐁티, 530쪽.

28) 심광현②, 「제1강 지구적-문명적 위기와 적/녹/보 연대의 기본과제(총론)」, 2020. 1쪽 아래 표로 정리.

위기	내용
환경 생태학적 위기	더 많은 노동력(LP)과 더 많은 생산수단(MP=자연자원+도구/기계)을 상품 생산 과정에서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와 자연 자원의 파괴 및 그에 수반된 오염(배설물, 쓰레기, 기후 온난화, 황사 등)을 야기
인간 생태학적 (주체성의)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서비스가 밀집한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어 인구 밀도가 증가하며,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인구가 거주하되 일자리가 서로 달라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어려움. •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잦은 이사와 핵가족화로 인해 인간관계의 단절 ↑ • 불안정한 노동시장(임금 인하, 실업의 압력)으로 인해 생활고, 우울증/자살 ↑
사회 (시스템) 생태학적 위기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위 두 가지 위기에 대처해야 하지만, 198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을 타고 초국적화된 자본(자유로워진 자본이 노동력을 통제)은 IMF와 세계은행과 같은 초국적 기구들을 이용해 국가의 정책적 흐름을 좌우

<표 3> 세 가지 지구적 위기의 상호연관성

그중에서도,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접촉과 이동이 제한된 세계를 피부로 체험하고 있다. 이동과 접촉이 제한된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지각한다는 것이 신체와 세계의 변증 과정 그 자체라는 점에서, 신체의 이동과 접촉이 제한된 상태에서 지각의 폭은 좁아지거나 왜곡되지 않을까? 지각의 변형은 다시 신체와 세계를, 타자와의 공존의 양태까지도 변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해, 앞서 살펴본 지각, 공간, 시간, 공존의 현상이 이동과 접촉의 제한으로 인해 어떻게 변형되는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지각의 변형

지각의 변형 과정을 앞서 살펴본 생명의 네 가지 특징에 빗대어 이해해보면, 구조적인 이해가 가능할 듯하다. 아래 표로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생명의 네 가지 특징	지각의 과정	이동 및 접촉 제한 사회에서 지각의 변형
닫힌 자기축매 회로	신체의 운동	신체의 운동이 제한된다.
열린 열역학계와의 신진대사	신체와 세계의 애매성에 근거한 변증	여전히 신체와 세계는 각각 애매하고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 하지만, 세계를 향한 신체의 운동이 제한된다. 신체가 세계를 제한적으로 체험한다.
임계점과 상전이	신체가 대상을 지각, 대상이 나에게 존재	감각과 지각을 통한 대상과 현상의 창발 빈도가 줄어든다.
공진화	신체와 세계의 변화	신체가 세계를 지각하는 만큼, 세계는 열리고 변화하는데, 그 열림과 변화가 제한되어 공진화 과정이 더뎈다.

<표 4> 비대면 사회에서 지각의 변형

사실, 비대면 사회는 코로나19 이전부터도 많은 부분 스며들어와 있었고, 왜곡된 지각 현상

또한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인터넷 쇼핑을 떠올려보자. 스크린 속 상품 A가 ‘그렇듯해’ 보여 주문한다. 그런데 현전하지 않는 대상을 관념에 맡긴 채 보는 것을 지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사람들은 이 역시 지각 행위라고 생각한다. A의 사진을 보고 A를 지각한다고 착각한다. 여기서 지각의 왜곡이 발생한다. 내가 선택한 것은 상품 A가 아니라 상품 A의 사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택배를 받고 나면, 내가 생각했던 질감과 두께, 색감과 일치하지 않는 지각의 왜곡을 경험한다. 스크린 속 정제된 상들에 대해서 또 하나 생각해볼 수 있는 예는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들었을 때다.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 당신의 하반신은 강의실에서 입던 것과 같은 차림새였는가? 당신의 시선은 책이 아니라 다른 곳 -이러면 스마트폰-에 가 있던 적이 있지 않았는가? 당신의 컵에는 정말 논알코올의 액체가 있었는가? 대면 수업에서 당연하게 요구되는 옷차림의 단정함과 또렷한 시선, 논알코올 섭취의 의무는 비대면 수업에서 은밀하게 해방된다. 보이지 않음으로써 말이다.

스크린을 통해 지각하는 것은 결국 신체와 세계의 분리를 초래한다. 스크린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무한이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깔끔하고 정돈된 상만이 현전하는 스크린 세계에서 ‘카니발’²⁹⁾은 없다. 따라서 합일의 경험도 없다. 분리 상태의 지속만이 있을 뿐이다. 아무리 온전한 대상을 비추고자 하는 스크린 세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각하는 나에게 있어 그 진정성은 이미 중요하지 않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미디어의 폭력성과 자극성 또한 당연히 높아진다.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미디어는 그로테스크 문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더이상 합일을 추구하는 그로테스크가 아닌, 분리 상태에 대한 불안과 환멸의 한 현상으로밖에 남지 않는다. 올해 초 있었던 ‘N번방 사건’만 떠올려도 그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N번방 사건은 자신 앞에 있지 않는 대상에 대해 무심해질 수 있음을 넘어, 분리되었던 나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내 앞에 존재하지 않는 타자에게 얼마든지 폭력적이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다. 타자는 더 이상 나와 상호주체성을 지닌 존재가 아닌 단순히 나의 상실감을 채울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렇듯 신체와 세계의 분리 상태의 지속에서 신체는 어딘가에 정박하지 못한 채 극단을 오가게 된다.

한편, 접촉 제한 사회가 코로나19 이전의 비대면 사회의 모습과 다른 점은, 이동과 접촉의 자유가 제한된 것이 인간의 의도에 반하는 인간적 요인에 의해 촉발된 비정상적 상태라는 것이다. 그런데, 접촉이 제한된 사회가 ‘정상’으로 규정되는 사회가 도래한다면, 이야기는 또 다시 달라진다. 지금까지 풀어온 지각의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지각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무미무취하고 건조한 화면 속에, 0과 1의 무수한 변형들로 만들어진 시각과 청각적으로 ‘그렇듯해’ 보이는 세계가 더 이상 그렇듯한 것이 아닌 세계가 된다. 신체는 스크린 세계 속에서 정박해 이전과는 다른 제한된 -하지만 더 이상 제한되었다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감각으로 대상을 체험한다. 이러한 세계가 당연해진다는 것은 신체 또한 변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가 현재와 같은 역동의 산물인 동시에 세계만이 단편적으로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연해질 수 있을까? 지금의 나, 즉 모든 감각의 총합을 통해 세계를 지각하는 나의 신체에게 있어 접촉 제한 사회는 언제까지나 당연할 수 없다. 나는 세계와 온몸으로 접촉함으로써 나의 존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29) 카니발은 중세 및 르네상스 시기에 “부활절 40일 전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전야의 3일 혹은 7일 동안의 제전으로서, 사순절 시간에는 그리스도가 황야에서 단식한 것을 상기하며 육식을 금하는 까닭에, 그 전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즐기려는 놀이 문화의 집합(바흐친: 23쪽)”을 말한다. 카니발적 문화에는 의식적, 골계문화, 거리낌 없고 속된 광장 언어가 있다. 카니발은 공식적이고 엄숙한 사회에 <웃음>과 <유쾌한 상대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전민중적, 축제적, 삶에 대한 긍정을 통한 합일의 경험 등을 그 특징으로 하는 그로테스크 문화의 일종이다.

2. 공간과 시간의 변형

신체가 있고, 그 신체가 행동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체를 세계의 일반적 상징체계로 이용한 것과 같다. 따라서 어떤 단어를 접하면 그 신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단어에 즉각적인 의미를 체감하고 반응한다. 이로써 신체는 세계에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신체의 지각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모든 시공간에서 세계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일어난다. 한편, 접촉 제한 사회에서 신체의 행동은 어떤 공간과 어떤 시간을 만들어 냅니까?

1) 공간의 변형

심광현은 대안사회 문화를 제안함에 있어, 그 형태를 <시간해방>이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자본주의가 수행한 문화혁명 중의 하나가 사람들을 특정한 장소에 평생토록 묶어놓았던 봉건 사회의 공간적 족쇄로부터 해방시킨 것이라면, 대안사회로의 이행에서 나타나는 문화혁명의 하나는 <자본주의적으로 편성된 노동시간의 감옥>으로부터의 해방”³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염병이 돌고 접촉이 제한된 사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간의 족쇄를 다시 차게 하였다. 유럽에서는 밖에 나온 사람에 대해 드론이 따라다니며 외출을 통제했다. 한국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채 발이 묶인다.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이동 경로를 밝힘으로써, 의도치 못한 인권 침해를 당하기도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서 그들의 경로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더욱 가혹하게 힐난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한편, 이동과 접촉이 제한되면서 스크린 속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증가했다. 신체가 움직이고 지각할 수 있는 세계는 좁아졌고, 제한되고 분절된 신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세계는 무궁무진해졌다. 각종 모임은 물론 영화제나 공연들도 랜선을 통해 진행되었다. 하지만, 온몸으로 참여할 수 없는 공간은 허구에 불과하다. 가상공간은 가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2) 시간의 변형

앞서 제시한 <시간해방>이란 자본주의적으로 묶인 시간의 족쇄로부터의 해방이다. 즉, 잉여 가치 축적을 위해 소모되었던 필요노동 시간을 없애고, 사회적 필요노동시간 역시 감축함으로써 “모든 개인들을 위해 자유롭게 된 시간과 창출된 수단에 의한 개인들의 예술적, 과학적 교양 등의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³¹⁾

하지만, 그러한 대안사회의 모습에 앞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세계 속에서 사람들은 자본주의적 시간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쫓겨남 또는 시간의 소멸을 지각했다. 많은 노동자들은 기존에 자신에게 요구되었던 필요노동시간에서 상당히 많은 노동시간들을 단축 ‘당했다.’ 단축된 노동시간이 극소수의 누군가에게는 여가로 이어졌지만,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생계를 예기치 못하게 잃어버리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자신의 생계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일상이라는 시간으로부터 박탈당했다는 것과 같다. 물론 이때 일상이 자본주의적 굴레 속의 일상, 즉 노동 착취의 일상이지만, 어떠한 안전장치 없이 그 일상에서 떨어져나갔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굴레 안에 있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과 같다. 이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이라고 지각했던 현재들과의 불일치를 느낌으로 인해, 과거와 미래라는 지평 또한 분열되었고, 자신의 존립마저 흔들림을 지각했다.

30) 심광현③, 「제8강 생태문화사회로의 이행: 상부구조의 변화」, 2020, 12쪽.

31) 심광현③, 12쪽.

3. 공존의 변형

접촉과 이동이 제한된 세계에서 나는 타자를 지각할 수 없다. 현재 내가 타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들을 떠올려 보면, 문자, 음성전화, 화상전화, 실제 만남으로 나뉘볼 수 있다. 접촉과 이동이 제한된다는 것은 이러한 의사소통방식 중 실제 만남이 제한되는 상황일 것인데, 몸과 몸의 접촉이 제한된다는 것이 어떻게 공존 형태의 변형을 이루는가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거울뉴런이론을 바탕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거울뉴런을 통해 내가 타자에게 공동주의 집중을 하고,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것은 타자가 내 앞에서 움직임으로써 생겨나는 연결감으로부터 실현 가능하다. 한편, 내 앞에 있던 타자가 스크린 속으로 사라지거나, 음성 또는 텍스트로만 남는다면, 타자와의 연결감은 약화되고, 거울뉴런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타자의 존재에 대한 나의 공감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타자를 더 이상 하나의 주체성을 지닌 존재로 여길 수 없게 된다.

의사소통 방식 중, 대면 이외에 활용되는 ‘언어’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언어는 몸의 운동에 대한 정교화된 해설로서 타자에게 스며드는 비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언어는 비언어, 즉 몸을 뛰어넘을 수 없다. 신체와 신체의 마주함 없이 내가 타자에게 건네는 말은 타자 없는 독백의 향연이 되다가 결국은 그 독백마저도 사라지게 된다. 타자가 내게 건네는 말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외의 경우가 있다면, 나와 타자가 서로를 현재 여기에 있도록 하기 위해 서로의 신체와 신체가 마주했던 과거의 기억을 끊임없이 데려오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만이 공존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스크린은 픽셀로 이루어져 있고, 그 픽셀들은 대상을 평면 위에 나타낸다. 하지만 스크린에 묘사된 상의 실재는 픽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 실재는 무기물과 유기물의 종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땅으로 복귀하는 물질들이다. 물성 없는 픽셀로 드러나는 타자의 이미지는 이미지일 뿐 타자가 아니다. 타자의 실존을 확신할 수 없다. 타자의 실존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나의 실존은 역시나 보장될 수도, 증명될 수도 없다. 나의 신체와 세계는 타자 즉 나와 함께 이 땅에 받을 딛고 있는, 다시 땅으로 회귀할 존재와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렇기에 나는 아무리 접촉이 제한된 사회라 할지라도, 현전하는 타자와의 최소한의 접촉을 갈구할 수밖에 없다. 이 시국에도 마스크를 쓴 채 Zoom 강의를 듣더라도 지순협 강의실에서 모여 들듯이 말이다.

공존의 불가능은 나로 하여금 자폐(自閉)적 일상을 지속하게 한다. 여기서 자폐의 의미는 의미심장하다. 자폐증은 “심리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자기 내면세계에 틀어박히는 정신적인 질환”³²⁾으로, 자폐증 환자는 “현실 세계는 꿈과 같이 보이며, 대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한다.”³³⁾ 비대면 사회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일상이, 접촉 제한 사회가 되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는, 자폐적 일상의 지속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사실 이러한 자폐적 일상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비인간동물의 멸종으로 인해 생물의 종 다양성은 점차 줄어들고, 인간동물인 나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배제하며, 나에게 타자로 존재할 수 있는 타자는 선별되어 소수만이 곁에 존재하게 한다. 이로 인해 상호 주체로 마주할 수 있는 관계의 폭은 좁아지고, 공감 능력 역시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地)로 존재하는 세계는 무궁무진하고, 내가 지닌 신체 역시 무궁무진하다. 그러한 신체와 세계의 창발성이 가로막힘을 신체는 몸소 안다. 자신이 존재하는 세계가 좁아지고 있음을 말이다. 이는 소외와 배제의 모습으로 세계에 나타나며, 나아가 내가 타자와 관계맺음이 서툴러짐에 따라 타자가 있음에도 그 타자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더 이상 타자와의 공

32) 네이버 국어사전

33) 네이버 국어사전

존은 불가하고, 타자는 오히려 나의 좁은 세계를 침입하는 적이 된다. 상호 주체로서의 타자가 없는 세계는 더 이상 세계가 아니고, 나의 신체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IV. 그럼에도 세계-에로-존재로서 자유 실현

세상이 요지경이라 하더라도, 요지경인 세상을 지각하는 것은 결국 나이다. 내가 나의 신체로써 살아 움직이기에 이 세상이 있고, 나의 움직임에 의해 세상은 변화한다. 내가 변화시키는 나의 신체와 나의 세계는 타자와의 접촉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신체이자 세상이다. 나의 몸, 타자의 몸, 세계는 내가 지각하는 한, 늘 존재한다. 스크린의 이미지가 내가 존재하는 세계와 다름을 지각하는 것도, 접촉 제한 사회의 도래로 인해 암울한 공동체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도, 이를 거부하고자 애쓰는 것도 결국은 나이다. 신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나아가는 것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접촉이 사라져 가는 이 세계 속에서도 나는 나의 자유를 실현함으로써 세계를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세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세계로 받을 디딜 수 있을까? 이에 메를로-퐁티가 제시한 ‘세계-에로-존재’로서 자유의 의미를 살펴보고, 접촉 제한 사회에서 자유의 실현이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상해보고자 한다.

1. 세계-에로-존재로서 자유의 의미

자유는 내가 세계-에로-존재(être-au-monde)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다. 세계-에로-존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세계-에로-존재는 세계에 속해 있으면서 그러나 세계에로 매몰되지 않고 세계를 소유하고자 세계로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실존적 초월 운동을 가리키는 메를로-퐁티 특유의 전문 용어이다. …… 세계 내에서 머물러 정지하고 있는 데 그치지 않고 동시적으로 세계를 향해 초월하고 참여하며 위탁하는 끝없는 도주와 탈주의 운동성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 붙어 au는 à+le의 축약어로서 여기서의 à …… 장소와 운동, 방향, 내속 또는 소유의 의미를 동시에 뜻하는 into+in+to+at+of를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 장소의 의미가 이미 전제되어 있고 운동의 방향 그리고 소유화를 동시에 함의하는 ‘에로’를 택했다.³⁴⁾

내가 세계-에로-존재인 것은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이다. 나는 이 세계에 탄생함과 동시에 이 세계에로 탄생했다. 따라서 나는 세계 안에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움직임으로써 세계로 나아가고, 세계를 변화시킨다. 세계에로 참여함으로써 내가 세계와 마주하는 것, 그것이 곧 나의 자유이다. “자유는 -우리가 시초에 시작했던 인간 이전의, 역사 이전의 자유조차도 언제나 나 외부와 내부의 만남”³⁵⁾이기 때문이다. 즉, 자유는 신체와 세계의 변증 그 자체이다.

내가 전진할 가능성을 가지는 것은 제한도 유보도 없이 지금 나인 것임으로써이고, 내가 다른 시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시간을 체험함으로써이며, 내가 저리로 나아가 갈 수 있는 것은 현재와 세계에 뛰어듦으로써, 뜻밖에 나인 것을 단호하게 말음으로써,

34) 메를로-퐁티, 692쪽.

35) 위의 책, 678쪽.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함으로써,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함으로써이다.³⁶⁾

나의 실존은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나 자신, 타자, 세계의 존재와 이들의 열려 있는 가능성을 신뢰하며 끊임없이 나를 그 속으로 던지는 자유 행위를 통해 실현된다.

2. 접촉 제한 사회에서의 자유 실현

결국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체험하고 있는 현재에 대해서만이다. 현재에 대해 말함으로써만이 나는 축적된 역사를 현재로 이행시킬 수 있고, 미래의 의지와 실천으로 이행할 수 있다. 내가 지각한 지금의 세계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 자연, 인간, 사회의 모든 생태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2020년의 상반기는 감염병의 지속으로 인간동물 간의 이동과 접촉이 제한된 세계를 전지구적으로 마주하고 있다. 이곳에서 나는 특정한 조건 -작은 규모의 사적 공간, 마스크 착용 등- 아래에서의 접촉을 통해서만 타인이 존재함을,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지각할 수 있고, 이로써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 이동과 접촉이 제한된 이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체는 나의 방식으로 세계 속에 실존적 기투³⁷⁾를 행하고, 타자와의 공존을 실현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자유를 실현함으로써 실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동과 접촉이 제한된 사회 속에서 개인들의 자유는 어떻게 연합하고, 공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지향점으로 소규모 대면 공동체, 유비쿼터스의 생태학적 활용을 통한 공동체 간 연합, 그리고 자연 앞에서의 겸손한 기투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규모 대면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이 세계에 거주하며 타자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 역시 내가 참여할 때 비로소 실현되기에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 타자와의 공존, 그 공동체의 지속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광현이 제시한 ‘생태 문화 사회’를 참고할 수 있다. ‘생태 문화 사회’는 참여계획경제와 참여계획문화 형태로 이루어진다. 참여계획경제 방식을 통해 “노동시간과 자유시간의 배분과 그 활동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방식은 주기적으로 참여자들 간의 공개적인 토론과 평가를 통해서 조정”된다. 이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사회적 개인이라는 위치에서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공간의 경우, 참여계획문화를 통해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심광현은 2010년 한국의 건축가 하태석이 제안한 ‘쌍방향 도시생성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엔터테인먼트, 일, 예술/음악, 실외생활, 교육, 파티 등을 포함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맞춤형 주거 공간을 꾸려나가는 방식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소규모 대면 공동체의 확장은 각종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확장은 소규모 공동체 간 연결의 확장을 말하며, 이때의 연결 양상은 척도 없는 네트워크(scale-free-network)를 지향한다. 한편, 공동체 간 연결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데, 이 글에서는 고민되어야 할 지점들을 짚어보는 것까지 하고, 관련 연구는 추후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우선, 세계화와 같은 초국적 기업에 의한 착취 방식이 아닌 공동체 간 평등한 연결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교통·통신 수단의 발전이 인간동물이 아닌 비인간동물을 포함한 자연 생태계에 미치

36) 위의 책, 680쪽.

37) 기투(企投, projet)란 “스스로의 존재 가능성을 향해 몸을 던지는(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것, 즉 실존하는 내가 스스로의 삶을 기획하여 세계로 던지는(투사) 행위를 의미한다.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실존적 기투란, 세계-에로-존재 개념과 직결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세계에 속하면서 동시에 세계에로 나아가는 존재로서 나의 몸을 세계로 내던지는 것을 의미한다.

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

셋째, 자연 앞에서의 겸손한 기투는, 레이먼드 윌리엄즈가 제안한 <자연적 성장(natural growth)의 육성(tending)>으로서 문화 개념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는 메를로-퐁티의 세계와 신체에 대한 관점과도 상통한다. 세계의 불투명성과 신체의 불투명성 간의 변증 과정이라는 점에서 말이다. 한편, 앞으로의 대안 사회에서는 레이먼드 윌리엄즈의 문화 개념 중에서 “자연적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 아래에서 우리는 자연적 성장의 부분을 간과한 채, 인공적인 육성만을 바라보고 달려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간동물의 어리석음과 이기심이 자연을 소외시키고, 자기 자신까지도 소외시키고 말았다. 이에, “<인간과 자연의 신진 대사의 합목적적 조절>을 통한 인간과 자연의 공진화와 타자와의 협력”³⁸⁾을 추구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소외와 배제를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 나의 자유는 세계라는 장(場)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에 자연 앞에서 겸손하며, 나의 자유가 타자를 침해하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V. 결론

이상 지각의 의미를 바탕으로 접촉 제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메를로-퐁티의 지각에 대한 현상학적 철학을 따라가며, 신체와 세계의 변증법적 관계, 나아가 접촉을 통한 타자와의 공존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나의 몸을 가지고 똑바로 보기 위해 노력하고, 내가 세계에 참여함으로써 세계는 바뀔 수 있음을,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변화가 무수함을 발견했다. 더불어, 나는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일원이기에, 자신의 자유를 자연 앞에서 겸손하게 기투해야 함 또한 확인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간동물 간 접촉이 제한된 지금의 모습은 다분히 암울하다. 타자와의 연결은 끊기고, 개인의 삶은 공간과 시간으로부터 분리를 경험한다. 분리로 인한 혼란의 상황에서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더욱 가혹해지는 혐오와 차별 문제 또한 심각하다.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아동을 학대하고, 이번 사태를 특정 인종의 문제로 돌리며 인종 차별을 행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코로나19는 코로나19 이전 시대의 인류가 만들어낸 괴질”³⁹⁾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동과 접촉의 제한은 인간 스스로 자초한 현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에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바이러스 하나가 야기한 것으로 환원시킨 채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무기력해지기 전에, 코로나19 이전 우리의 시대는 온전한 사회였는가를 되물어야 한다. 되물음과 반성을 통해 인간동물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들을 재설정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추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촉 제한 사회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구조화가 필요하다. 지각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보니, 접촉 제한 사회에서 지각의 변형에 대한 자료 조사와 생각의 구조화를 이루는데 들인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다보니 서술에 있어 투박한 생각들을 거칠게 풀어놓은 부분들이 더러 생겼는데, 이 부분들을 보완하고 싶다. 둘째, 몸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의 깊이를 좀 더 다짐으로써 이번 글에서 다룬 내용 각각에 살을 붙여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에서 제시했던 공동체 간의 연결

38) 심광현③, 9쪽.

39) 정형철, 「코로나 시대, 아이들은 왜 학교에 가야 하는가」, 『오늘의 교육 2020 5·6 vol.56』, 교육공동체벗, 2020. 53쪽.

에 대한 고민을 더 하고자 한다. 이는 1학기 소논문에서 제시했던 추후 과제 중 하나인 '연결 고리', 즉 브론펜브렌너의 다수준적 생태학적 체계에서 '중간체계'에 관한 연구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겠다. 공동체 간의 연결이 어떻게 평등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나아가 지구 생태계와 공존할 수 있는 연결 방식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 미하일 바흐친, 이덕형·최건형 역,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아카넷, 2004.
- ▶ 메를로-퐁티, 류익근 역,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지성사, 2002.
- ▶ 신형철,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한겨레출판, 2018.
- ▶ 심광현①, <비고츠키와 공감의 생태학: 근접발달, 카오스 이론, 거울뉴런발달생태학>, 2013.
- ▶ 심광현②, 「제1강 지구적-문명적 위기와 적/녹/보 연대의 기본과제(총론)」, 지순협 대안대학 2020년 2쿼터 강의자료, 2020.
- ▶ 심광현③, 「제8강 생태문화사회로의 이행: 상부구조의 변화」, 지순협 대안대학 2020년 2쿼터, 2020.
- ▶ 정형철, 「코로나 시대, 아이들은 왜 학교에 가야 하는가」, 『오늘의 교육 2020 5·6 vol.56』, 교육공동체벗, 2020.